

† 마데레스는 체자라는 뜻의 헬라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 마데레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교회를 나의 자존심으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존심조차  
악으로 규정하며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형통과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로지  
불쌍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만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것을 나눠 줄 수 있다면

신윤식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것이  
내게 있음을 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대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와 나눈 그것이  
그를 부자 되게 못하고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힘은 아니지만

그의 길에 빛이 되어  
위로와 기쁨을 알게 하고  
복된 길로 가게 하니  
그것을 나눠 줄 수 있다면  
그대는 누가 뭐래도  
아주 많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mailto: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12.22

발행호수 제21권 51호

**본** 문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본문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앞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나쁜 예로, 세리의 기도를 좋은 예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본문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이 선입견으로 인해서 본문의 비유를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세리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경우를 교만으로 세리의 경우를 겸손으로 받아들이면서 세리처럼 겸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비유를 그렇게 해석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가 의롭다고 여김 받는 것을 그의 겸손한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판하면서 세리의 기도를 신자가 취해야 할 모범적인 기도로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기도의 좋은 예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무시하지 말 것을 가르치기 위함도 아닙니다. 물론 본문의 마지막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높아진다는 교훈적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해석은 결국 또 하나의 뻔한 교훈을 만들어 내는 것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쁘고 세리의 기도가 선하다면,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본받아야 한다면 과연 우리가 세리의 기도를 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그에 앞서 우리가 바리새인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으면서도 세리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의롭다고 한 세리의 기도를 실천함으로써 또 하나의 자기 의를 쌓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예수님이 기도 내용을 따지면서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속성을 기도를 배경으로 하여 드러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기도는 또 하나의 자기 의였습니다. 항상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에게 세리의 기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속성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과연 세리의 기도를 본받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않는다고 여길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노골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릅니다. 나는 주일성수도 잘하고 십일조도 잘합니다”** 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역시 세리의 기도를 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더 신앙인의 모습으로 비춰지느냐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우리에게 바리새인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악하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리와 같은 사람이 참된 신앙인일까요? 과연 여러분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 세리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낫다고 할 수 있었습니까?

바리새인은 그가 자신에 대해 말한 것처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 없을 정도로 반듯한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율법을 실천하기를 힘썼던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렸기에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식으

주일오전설교

의로운 자

눅 18:9-14

로 말하면 도덕적으로 반듯하고 인격도 좋으며 신앙생활에도 부지런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로마를 위해 일하는 때 국노였으며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강제로 거둬들이면서 토색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둘 중 누구를 참된 신앙인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누구처럼 살라고 할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의 믿음의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바리새인처럼 사람의 행위를 보고 선과 악으로 구분하며 악한 행위보다 선한 행위를 더 의롭게 여기는 의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리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세상 사람이 세리처럼 행동한다면 세상의 질서가 엉망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처럼 행동한다면 도덕적으로는 반듯해질 것입니다. 비록 서로 자기 의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세상의 질서만큼은 어지럽게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교회도 세리보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은 바리새인 쪽으로 향하고 있으면서도 바리새인을 비판하게 되는 것은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기도를 했다는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교만으로 생각하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보다도 못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 무시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전혀 무시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더 솔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노출되면 자신의 신앙 평가에 손해가 되고 타인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기도를 할 때 누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겠습니까? 다들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자신의 겸손과 믿음을 드러낸다

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누구에게로 향해있을까요? 또한 우리의 속마음에는 바리새인과 세리 중 누구의 속성이 자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한 우리는 바리새인의 속성을 가지고 살면서 늘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을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9절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 자리에 특별히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믿음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보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스스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고 그런 자신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속성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4절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말씀이 진심으로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비교하며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면 엉망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라는 반발이 있다면 그것은 외적인 삶의 모습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리처럼 사는 것보다는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더 낫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묵사는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

라도 예배당을 크게 짓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교인에게 전도를 강조하는 것도 다른 교회보다 더 나이지고 싶어 하는 마음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순순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본다면 이미 우리는 바리새인의 속성에 깊이 빠져든 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리처럼 기도하고자 하는 것 또한 자기 의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로 여기지는 것을 실천하는 자기 성취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 또한 자신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높아지기 위해서 즉 겸손하다는 평가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인자가 오셨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것처럼 참된 믿음을 보기가 힘든 것이 세상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풍성한 것처럼 보인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같은 사람을 보면 믿음이 없다며 비판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의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리처럼 착한 일을 하지 말고 악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반듯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가 될 수 없음을 깊이 자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남보다 더 반듯하게 살았다는 것 때문에 자신을 나은 자로 여겼던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높이는 바리새인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이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였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세리처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의는 우리의 실천으로 가능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능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서 의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죽은 자를 두고 누가 더 낫다고 비교하는 것만큼 헛된 일도 없습니다. 다만 죽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으며 주만 바라볼 뿐입니다. 이것이 은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로 묶여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를 불러서 하나로 묶여서 머리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관계에 있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로 부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 못하고, 반대로 악한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죽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리새인의 모습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은총의 세계에서 경험되는 것은 오직 기쁨과 감사입니다.

.....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해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석입니다. 2절에서 언급되는 요새, 산성, 방패라는 단어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든든한 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주일오후설교

시 144:1-15

복이 있는 자

(148장 12.8일 설교)

것도 반석과 요새와 산성과 방패로 여기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든든한 힘으로 여기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이것을 오해하여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와 산성이 되어 주심으로 어렵고 힘든 일로부터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무사하게 해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신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평안을 위해 하나님이 반석과 산성 요새처럼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를 반석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다릅니다. 단적인 예로 여호와를 반석으로 믿는다면 여호와가 계시는 것으로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불안함이나 염려는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가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무시한 상태에서의 말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절에 보면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고 말합니다. 싸우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시는 분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석 되신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힌 일이 전쟁인 것처럼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겪게 되는 것은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공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쫓아내며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아야 할 자로 부름 받은 것처럼 신자 또한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무시하고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자기 힘을 삼고자 하는 세상에서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는 고백으로 사는 것이 신자라면 총돌과 함께 전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늘 싸우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싸움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자가 가야 할 길에 뜻을 두기 보다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

평안을 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가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에 전혀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도 구하지 않으면 오로지 보이지 않는 세계인 의의 나라만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육신을 온전히 내려놓기 보다는 끊임없는 집착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한 채 세상이 가는 길로 붙들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멸망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승리는 여호와께 있음을 절감하며 여호와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나의 반석, 산성, 요새, 방패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벗어나야 할 곳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자기 삶의 문제로만 찾을 것입니다. 자기 삶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3,4절을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고 말합니다.

이 고백대로 인간은 헛것 같으며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덮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헛것 같고 그림자와 같은 인간을 주께서 알아주시고 생각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헛것 같은 인간을 알아주셨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알아주셨다”** 고 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생각하신 일은 헛된 존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인자를 베푸신 것입

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알아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된 사람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복을 입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인간에 대한 평가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떨친 자라 할지라도 헛되다는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잠시 후면 사라질 육신일 뿐이기 때문에 그림자 같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야말로 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베풀어지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베풀어지는 은총들이야말로 세상에서는 살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된 사람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반석으로 고백하는 신자라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의미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 곱과 블레셋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에 대한 멸망 예언은 모두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 나라에 대한 멸망 예언을 대할 때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뿐 아니라 북 이스라엘과 유다까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역시도 이방 나라와 다를 바 없이 죄에 속했음을 말하는 것이고 죄로 인한 그들 운명 또한 이방 나라와 다를 바 없음을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죄와 상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에 붙들려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되었으니 더 이상 죄를 말하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뜻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죄가 용서된 죄 없는 거룩한 자로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용서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에는 거저주시는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롬 5:20)고 말한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면 은혜 또한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죄의 무거움을 알지 못하는데 용서의 가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도록 끌여가고 넘치는 죄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은혜가 가장 크고 존귀한 사건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빈틈이 전혀 없이 갚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10절의 **“여호와와 그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수요일설교

렘 48:1-10

**모압의  
멸망 예언**

(102장 12.4 설교)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는 말씀도 이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와 일은 모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는 모압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신 적군입니다. 그들이 모압을 멸망하는 일을 할 때 모압을 불쌍히 여겨서 칼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파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인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시행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에 있어서는 유다도 다른 이방 나라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에게는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이방 나라와는 다르게 대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 나라와 유다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존재한다는 것이 세상의 부요와 힘을 근거하여 존재하는 것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은총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알지 못했던 유다는 이방 나라가 세상의 부요와 힘을 근거하여 존재하는 것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처럼 부요와 힘을 자신들의 존재 기반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존재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멸망 예언은 단순히 이방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가 망한 것을 굳이 유다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 또한 이방 나라처럼 철저하게 무너지고 사라져야 할 존재임을 자각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자신들을 이렇게 대하시는가를 알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멸망하여 사라지는 이방 나라를 보면서 자신들 역시 동일한 죄 가운데 있는데 왜 자신들은 사라지지 않는가를 하나님에게서 찾게 하시고 그 근거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알게 됨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살았습니다’ 는 고백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채워지고 감사함과 감격으로 채워짐으로 가능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만으로 가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고, 살 수도 없다는 것을 절감할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짐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고 말합니다.

모압은 역사의 초기부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지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모압을 아직 건져 내지 않은 상태의 포도주에 비유하면서 적군의 포로가 된 경험이 없이 평안의 상태로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태평성대를 누려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압도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서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순다고 하십니다. 결국 모압이 역사 초기부터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해도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태평성대를 누린다고 해도 죄 있는 존재이고 그 운명은 심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모압은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습니다.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자기 존재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자기 업적과 보물에 붙들려 살지만 심판 앞에서는 지푸라기와 같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돈 덕분이고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피의 은혜가 우리를 존재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방 나라의 멸망 예언을 보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심판 예언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심판 받아야 할 내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은혜 때문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높이 감사해야 합니다.

##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49장  
교 독 : 43(시99편)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458장  
성 경 : 눅 18:9-14  
말 씬 : 의로운 자(88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84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5장  
축 도 : 설 교 자

## ■ 오후예배 ■

2시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83장  
기 도 : 김윤점 집사  
찬 송 : 360장  
성 경 : 시 146:1-10  
특 송 : 봉사부  
말 씬 : 여호와를 찬양하라(150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6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105강)

## ■ 교회소식 ■

1. 25일 성탄절에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식사 후에 행사가 있습니다.
2. 2014년 달력을 제작하였습니다. 한 가정에 한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3. 선교부에서 헌옷을 수집합니다. 입을 수 있는 옷을 세탁하여 가져오시면 모아서 필요한 곳에 기증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것은 이성희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영민 장로      오후 - 조길욱 집사

## 이단 62 (김기동 귀신론)

귀신론으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는 현재 서울성락교회 원로감독이며 베뢰아 아카데미의 원장이다. 베뢰아 아카데미는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이며 서울성락교회는 기독교남침례회에 소속되어 있다. 또한 기독교남침례회는 김기동 목사가 기독교한국침례회로부터 탈퇴해서 창설한 교단이며 기독교남침례회는 다시 기독교한국침례회(연맹)로, 성락교회는 서울성락교회로 개명을 한 것이다.

김기동 목사는 귀신론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여러 사상에서 문제점을 드러냄으로 한국 기독교의 여러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는데, 기독교가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구원론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김기동 목사의 구원론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간의 관계에 마귀를 개입시켜 다루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그의 논리가 잘못되었다고 규정하기는 힘들다. 어쨌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단절에 마귀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김기동 목사는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대속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귀에 대한 그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구원론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기동 목사의 신학적 사상은 그가 추구하는 베뢰아 신학과 베뢰아 운동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베뢰아 운동은 행 17:11,12절에 등장하는 베뢰아 사람을 모범으로 한다. 신사적이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는 것을 모범으로 해서 예수 이름을 바로 알고 믿으며 그 이름으로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 김기동 목사가 말하는 베뢰아 운동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베뢰아 운동이라는 것은 별 문제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권세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 이름의 표적이 따르고 사도적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을 보면 그가 추구하는 베뢰아 운동은 결국 신유와 축사가 따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성락교회도 김기동 목사의 베뢰아 운동을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뢰아 사람들의 정신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는 운동'이라고 정의하면서 이것을 신약교회 운동, 성경 달기 운동, 평신도 운동이라고 말한다. 즉 교회는 신약성경을 달고 성도는 교회를 달자는 운동이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성경 달기 운동, '성달운동'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교회는 성경을 달고 성도는 교회를 달자는 것이 교회와 성도를 구별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또한 교회가 신약 성경을 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또한 신약을 중시하고 구약을 배제하고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성경에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고 말씀한다. 이때에는 신약성경이 없었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 모두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신약 성경을 달자는 것은 뭔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이들이 말하는 성경 달기 운동이란 '성도는 성경의 약속을 달아야 하고 성경의 믿음을 달아야 하며 성경의 능력을 달아야 한다는 환언(還言)운동'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말 자체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성경의 약속은 신자가 달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문제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간의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